

제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 일본어과 교과서(I)의 어휘분석

박 원*

차례

1. 들어가며
2. 일본어 교과서의 어휘 조사 분석
3. 교과서별 어휘 조사의 결과 및 분석
4. 문제점 및 제언
5. 마치며

1. 들어가며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쉽고 재미있는 교과서를 만들고, 사용어휘를 대폭 줄여 학습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그 목적을 두어 기본어휘 843단어 중 500단어 내외를 선정하여 교과서를 집필하도록 원칙을 정했으므로 적은 어휘로 크게 능률을 올릴 수 있는 어휘선택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다.

본 논문은 일본어 교과서의 어휘에 관한 기초적인 분석형태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7차 교육과정의 일본어과 교과서에 대한 선행연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제7차 교육과정으로 새로 편찬된 4종류의 일본어(I) 교과서를 일정한 기준으로 컴퓨터를 활용하여 어휘를 조사, 비교함으로써 교육과정이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와 교과서의 어휘의 특징과 실태를 파악하여 교수법에 적극 활용하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의 교재 편찬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대일 정보산업고등학교 교사

2. 일본어 교과서의 어휘 조사 분석

2.1. 조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조사를 위한 자료는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일본어(I) 교과서 4종이며 추가로 8종의 일본어(I)교과서가 출판되어 있으나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은 추가 본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표1>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일본어 교과서

기호	교과서	저자	출판사	발행년도
A	일본어(I)	이현기, 이한섭, 한중선	(주)진명출판사	2002
B	일본어(I)	유길동, 여선구, 조문희, 가이자와 도시코	(주)진명출판사	2002
C	일본어(I)	김숙자, 어기룡, 이경수, 사이토 아사코	(주)대한교과서	2002
D	일본어(I)	한미경, 津崎浩一, 조성범, 이영환	(주)블랙박스	2002

(기호란의 A~D는 교과서의 구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임)

어휘 조사는 문장으로 이루어진 자료를 일정한 단위로 모두 분할하여 그 각 단위들의 집계와 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전체 교과서의 문장을 모두 일정한 단위로 분할하여 그 단위를 조사하는 방법인 전체 조사로 현행 일본어교과서의 어휘 구성을 밝혀보고자 한다.

2.2. 단위의 설정 및 규정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일본어과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표의 어휘들의 단위를 설정 기준으로 삼기로 하되, 여기에 나오지 않은 것은 다음의 기준을 정하여 단위를 설정하기로 하였다.

- (1) 동사, 형용사, 조동사는 기본형을 그리고 형용동사는 어간만을 설정한다.
- (2) 접두사 「오」(お)와 「고」(ご) 그리고 접미사 「상」(さん) 등이 붙는 것은 기본 어휘표에 의거 분할 여부를 판단하였고 기본 어휘표에 나와 있지 않은 단어에 대해서는 분할시켰을 때 의미가 변하거나 하나의 단어로 굳어져 더 이상 분리되어 사용

되어지지 않는 경우는 분할시키지 않는다.

예) おちゃ(차), おたく(택), ごはん(밥) 등

(3) 연어와 관용구 등 분할시키면 그 의미가 변하는 경우는 분할시키지 않는다.

예) 子供の日(어린이날), いけない(안되다), ごちそうさま(잘 먹었습니다) 등

(4) 복합명사 중 결합도가 높은 어는 분할시키지 않는다.

예) てんきよほう(일기예보), えいせいほうそう(위성방송) 등

(5) 인사말로 굳어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본래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에는 분할하지 않는다.

예) あけましておめでとう(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すみません(미안합니다), おじゃまします(실례하겠습니다) 등

(6) 숫자는 조사 단위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조사대상이 고등학교 일본어(I) 교과서라는 점을 감안해 1부터 10까지는 조사 단위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예) ひとつ, ふたつ, みっつ … とお(하나, 둘, 셋……열)

(7) 숫자 중 고유한 읽는 법이 존재하는 숫자 몇 가지는 단위에 포함하기로 한다.

가. 월(月)의 경우는 각각의 달을 고유한 의미를 지니는 명사로 보고 하나의 단위로 설정한다.

예) いちがつ, にがつ, さんがつ … じゅうにがつ(1월, 2월, 3월……10월)

나. 일(日)의 경우는 개개마다 고유한 읽는 법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조사 단위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예) ついたち, ふつか … とおか … はつか(1일, 2일, 3일 … 10일 … 20일)

다. ひとり(한사람), ふたり(두사람) 등과 같은 고유 일본어계 수사는 조사 단위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8) 고유명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일본 문화 고유 단어와 가타카나 표기의 고유명사를 포함시켜 조사하였다.

예) ひなまつり(히나마쓰리)¹⁾, わしつ(일본식 방), おぼん(추석), キムチ(김치), シルム(씨름) 등

(9) 고유명사의 가타카나(カタカナ) 표기가 각 교과서별로 달리 표기된 경우에는 하나로 묶어 표기한다.

예) ナムテムン / ナンテムン→ ナムテムン(나무대문 / 남대문→ 나무테문)

(10) 문장부호나 각종 기호들은 조사 단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예) , . () 「 」 ! ? ~ 등

(11) 같은 낱말이 품사 또는 발음상 다른 형태를 취하더라도 같은 항목으로 취급하였다.²⁾

예) わたし / わたくし(저/지), あちら / あっち(저쪽/저쪽), じゅう / とお(십/열) 등

(12) 형태는 같으나 의미가 다른 낱말은 독립된 항목으로 취급하였다

예) 노(の, 조사), 노(の, 형식명사) 등

3. 교과서별 어휘조사의 결과 및 분석

3.1. 각 교과서별 연어수³⁾ 별개어휘수⁴⁾

4종 교과서의 어휘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2>와 같다.

제7차 교육과정이 제시하고 있는 학습 어휘수를 생각해 보면, 일본어(I)에서는 500단어 내외로 되어있고, 이는 제6차 교육과정의 무려 100단어가 줄어든 것이다. 이렇게 지도 어휘수가 줄어든 것은 학습자의 학습 능력과 학습 의욕을 충분히 고려해서 실질적인 의사소통에 필요한 최소한의 어휘만을 활용하려는 제7차 교육과정의 방침에 따른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이런 제7차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교육방침을 각 교과서가 어느 정도 따르고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표2> 각 교과서별 별개어수와 연어수

교과서	별개어수/연어수	각단위 평균출현 빈도수
A	442	9.38
	4,145	
B	562	10.83
	6,088	
C	632	12.40
	7,838	
D	580	16.92
	9,812	

위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A교과서를 제외한 모든 교과서들은 교육과정에서 권장하고 있는 500단어 내외의 별개어수를 모두 넘어섰고, C교과서는 132단어나 초과하여 어휘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별개어수와 연어수에 있어서 각 교과서 간의 차

이가 현저히 나타났다. 별개어수가 가장 많은 교과서는 C교과서의 632단어로, 가장 적은 교과서 A의 442단어와 무려 190단어의 차이를 보였다. 각 교과서의 연어수의 차이는 더욱 벌어져, 단어의 연어수가 가장 많은 교과서 D는 9812단어 가장 적은 교과서는 A로 4145단어이며 이 차이는 5667단어로 약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연어수를 별개어수로 나누면 각 어휘의 평균 출현 빈도수가 계산되는데 여기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은 어휘 습득에 대한 학습의 효과이다. 어휘 습득에 대한 학습의 효과는 일반적으로 어휘의 빈도와 분포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는데, 사용빈도가 높은 어휘를 학습함으로써 학생들은 기억을 잘 할 수 있게 되며, 언어의 유창성 여부 또한 빈도가 높은 어휘에서 기인하므로 심리적으로도 자신감을 얻어 의욕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어휘가 지나치게 반복되어 쓰이게 되면, 제한된 교과서의 분량 안에서 습득해야 할 다른 어휘의 출현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며, 어휘의 반복회수가 너무 적어도 반복학습이 필요한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학습효과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 4종 모든 교과서의 집계된 단어의 평균 출현 빈도수는 12.38회였다.

같은 단어가 반복 출현하는 횟수가 가장 적었던 교과서는 A교과서로 각 단어가 평균 9.38회 출현하였다. 그에 반해 평균 출현 빈도수가 가장 높은 것은 D교과서의 16.92회로 A교과서의 약 2배에 가까운 숫자가 나왔다.

이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은 다소 교과서 간의 통일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즉, 1회만 출현하는 어휘가 지나치게 많거나 조사와 조동사가 지나치게 많이 사용되면 학습에 효과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어휘의 반복 출현에 있어서 다른 교과서들과 차이가 나게 되며, 그 교과서로 학습한 학습자들의 학습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낳거나 학습 능력의 저하를 가져오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문제이므로 신중히 고려하여 1회만 출현하는 어휘, 출현 횟수가 눈에 띄게 많은 어휘, 다른 교과서들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어휘 그리고 조사와 조동사의 빈도수, 이 네 가지의 사용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할 것이다.

3.2 각 교과서별 공통 어휘 수

각 교과서에서 쓰인 어휘들이 몇 개의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출현하는 어휘인가를 조사해 본다면 각 교과서에 쓰인 단어들 중 어떤 단어들이 비교적 중요도가 높은 단어인지,

혹은 어떤 단어들이 중요도가 낮은 단어인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또, 1개 교과서에 만 나오는 어휘가 지나치게 많은 교과서가 있다면 그 정도에 따라 선택 어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4종의 교과서에 사용된 어휘를 조사하여 교과서마다 공통되는 어휘들을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표3> 교과서 간의 공통 어휘수

공통(종)	빈도수	상대비율	누적비율
한 교과서	389	39.61	39.61
두 교과서	189	19.25	58.86
세 교과서	167	17.01	75.81
네 교과서	237	24.13	100.00(%)
합계	982	100.00(%)	

위 <표3>은 집계된 각 교과서 공통 어휘의 숫자를 비교한 것으로, 1개 교과서에만 출현했던 단어는 네 교과서의 총 별개어수 982개 중 389개로 39.61%를 차지한다는 집계 결과 나왔다. 이는 네 가지 공통 사용률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또, 네 개 교과서 모두에 출현하는 어휘는 237개로 두 번째로 많았으나 전체의 24.13% 만을 차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의 여부는, 개인의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각 교과서의 어휘가 완전히 같을 수 없음은 당연하다. 지나치게 획일화된 여러 종류의 교과서라는 것은 그 존재의 의미가 없을 것이지만 상기해야 할 사실은 본 조사 자료인 교과서는 일본어(I)이며, 또 7차 교육과정에서는 이전 교육과정 시기와 달리 지도 어휘수를 대폭 줄여서 제시했다는 사실이다. 즉 일본어(I)에서는 그만큼 일본어 교육상 가장 중요하고 또 기본이 된다고 판단되는 어휘만을 엄선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에 일상생활에 있어서 자주 쓰이지 않거나 난이도가 높은 어휘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표4> 각 교과서별 공통 어휘수

구분	A교과서	B교과서	C교과서	D교과서	전체
한 교과서	65	103	127	94	389
두 교과서	65	87	121	105	189
세 교과서	75	135	147	144	167
네 교과서	237	237	237	237	237
합계	442	562	632	580	982

<표4>는 각 교과서의 공통 출현 어휘의 개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 표를 보면 1개 교과서에만 출현하는 어휘가 가장 많은 교과서는 C교과서의 127단어임을 알 수 있다. 반대로 1개 교과서에만 출현하는 어휘가 가장 적은 교과서로는 A교과서의 65단어로 집계되어 약 2배의 차이를 보였다.

각 교과서간에 공통되는 어휘가 모두 같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나 학생들이 고등학교 정규 과정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일상생활에 있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학습자에게 갖추게 하고, 일정 수준의 일본어 시험에 응시하였을 때에 각기 다른 교과서로 학습한 여러 학습자들이 생소한 어휘들로 혼란을 겪지 않게끔 되려면, 분명 각 교과서간의 어휘에 일정한 통일성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의식한 교과서의 편집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3.3. 각 교과서 출현 어휘와 교육 과정 기본 어휘와의 비교

각 교과서의 어휘 조사를 행함에 있어서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를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문제이다.

<표5> 교육과정 기본 어휘 중 각 교과서에 사용된 어휘수

교과서	기본어휘 사용어수	전체 별개어수	사용률(%)
A	288	442	65.16
B	373	562	66.37
C	429	632	67.88
D	434	580	74.83

위의 <표5>에서 제7차 교육과정 기본 어휘 중에서 몇 개의 기본어휘를 각 교과서에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 기본 어휘에 해당하는 단어를 몇 개씩 사용했는지를 알면 전체 별개어수와의 상관관계에서 그 사용률을 알 수가 있다. 즉 그 교과서에 나오는 전체 어휘 중 교육과정 지정 어휘가 차지하는 비율(%)을 알 수가 있는데 <표5>에서 그 사용률도 함께 나타내고 있다.

이 표를 보면, D교과서가 434단어의 기본어휘를 사용하며 그 교과서의 전체 별개어수 중에 기본어휘 사용률은 74.83%로 전체 네 개의 교과서 중 가장 기본 어휘를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기본어휘 사용률도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에 반해 A교과서는 288단어의 교육과정 기본 어휘를 사용하여 전체 사용 어휘의 65.16% 사용률을, B교과서는 373단어의 기본 어휘를 사용해 66.37% 사용률을, C교과서는 429개의 기본어휘를 사용하여 67.88%의 사용률을 보임으로서, D, C, B, A 의 순서대로 기본 어휘의 사용률이 높았다. 여기서 눈 여겨 볼 점은 D교과서의 전체 별개어수가 580개로 C교과서의 632개 보다 적지만, 기본 어휘의 사용률은 D교과서가 434개, C교과서가 429개로 나타나 C교과서는 더 많은 어휘를 사용하고도 D교과서에 비해 기본 어휘의 사용수가 떨어진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C교과서는 D교과서에 비해 기본어휘 사용에 충실하지 못했고, 비교적 중요도가 낮은 어휘를 사용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또, C교과서는 앞 장에서 한 개 교과서에만 출현하는 어휘가 가장 많은 교과서로 꼽히기도 하였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역시 한 개 교과서에만 출현하는 어휘가 많은 교과서는 그 만큼 교육과정 기본 어휘를 사용할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각 교과서들은 평균 381단어의 교육과정 기본 어휘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전체 별개어수의 각 교과서 평균 554단어의 68.77%에 해당한다. 교육과정에서 지적하고 있는 500단어 내외의 지도 어휘수를 사용하도록 했지만 이는 500단어의 70%에 해당하는 약 350단어까지는 사용을 허용하므로 평균 381단어의 기본 어휘 사용은 그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고는 하지만 다소 사용률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다. 전체 별개어수는 A교과서를 제외하고는 모두 550단어를 넘어서고 있으나 그 가운데에서 교육과정 기본 어휘의 사용은 69%에 그치고 있으니 이는 각 교과서의 어휘사용에 있어 아쉬운 점이다. 31%나 차지하는 교육과정 기본 어휘 외의 어휘들이 모두 불필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어휘라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앞서 기술하였 듯이 제7차 교육과정의 특징은 학습 어휘를 대폭 축소하였다는 데 있다. 이런 제7차 교육과정의 의도를 염두에 두면 자연히 적어진 학습 어휘를 의식하여 어휘 선정을 엄선하여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다. 그렇다면 그 엄선된 어휘란, 가급적 일본어(I)에서 학습할 범주를 벗어나는 어휘를 줄이라는 뜻과도 통하는 것이므로, 이런 사항들을 생각했을 때, 평균 69%의 기본 어휘 사용률은 비교적 낮은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표6> 기본 어휘의 교과서 간 공통률

교과서 수	빈도수	상대비율	누적비율
한 교과서	157	26.48	26.48
두 교과서	124	20.91	47.39
세 교과서	129	21.75	69.14
네 교과서	183	30.86	100.00(%)
합계	593	100(%)	

<표6>는 각 교과서간에 사용된 기본 어휘가 어느 정도의 공통성을 가지는 지를 나타내며, 교육과정 기본 어휘에 해당하는 어휘에 한해서는 각 교과서 간의 공통률이 전체 어휘 때의 비율보다는 훨씬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정 어휘의 대부분이 중요도가 높은 어휘이므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도 볼 수 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여기서 네 개 교과서 모두에 나온 어휘의 183단어였고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두 개의 교과서에만 나온 어휘, 124단어였다. 중요도가 높은 어휘만 추출하여 집계한 것이니만큼 각 교과서에서도 어느 정도 의식해서 사용하였기 때문에 전체 어휘 때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는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만 여기서도 한 교과서에만 출현하는 어휘가 157단어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 기본 어휘의 분포에 있어서도 네 개의 교과서가 어휘 선정의 통일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기본어휘 771단어 중 600단어 내외 선정을 기본 방침으로 제시했던 지난 제6차 교육과정 때 보다 기본 어휘는 832단어로 늘어나고 선정해야 하는 단어는 500단어로 줄어든 제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3.4. 각 교과서별 상위 빈도어의 비교

각 교과서 별로 상위 20위까지의 출현 빈도가 높았던 어휘를 추출하여 각각을 비교해보고 그 특징과 차이점을 알아본다 또 이들의 품사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오른쪽 칸에 각 단어의 품사를 나타내었다.

<표7-1> A교과서의 상위 빈도 어휘

순위	어휘	출현빈도	품사
1	です	437	조동사
2	は	210	조사
3	か	188	조사
4	ます	167	조동사
5	て	118	조사
6	を	109	조사
7	くださる	105	동사
8	の	91	조사
9	はい	73	감동사
10	た	55	조동사
11	ある	54	동사
12	いいえ	49	감동사
13	わたし	44	명사
14	さん	42	접미사
15	に	42	조사
16	なに	40	명사
17	ません	40	조동사
18	ね	39	조사
19	いく	38	동사
20	どうぞ	33	부사

<표7-2> B교과서의 상위 빈도 어휘

순위	어휘	출현빈도	품사
1	です	417	조동사
2	ます	304	조동사
3	は	253	조사
4	か	246	조사
5	に	208	조사
6	が	200	조사
7	を	157	조사
8	て	144	조사
9	の	143	조사
10	する	97	동사
11	なに	93	명사
12	さん	80	접미사
13	ある	73	동사
14	いく	71	동사
15	じ	69	접미사
16	たい	69	조동사
17	と	68	조사
18	わたし	60	명사
19	すき	57	명사
20	えん	53	명사

<표7-3> C교과서의 상위 빈도 어휘

순위	어휘	출현빈도	품사
1	です	545	조동사
2	は	397	조사
3	ます	320	조동사
4	か	315	조사
5	に	228	조사
6	を	219	조사
7	た	156	조동사
8	て	150	조사
9	が	146	조사
10	の	133	조사
11	する	114	동사
12	ある	108	동사
13	いく	104	동사
14	と	84	조사
15	ません	84	조동사
16	で	80	조사
17	なに	78	명사
18	いい	73	형용사
19	ね	72	조사
20	さん	71	접미사

<표7-4> D교과서의 상위 빈도 어휘

순위	어휘	출현빈도	품사
1	です	789	조동사
2	は	472	조사
3	か	471	조사
4	ます	460	조동사
5	を	314	조사
6	に	310	조사
7	が	258	조사
8	て	210	조사
9	の	196	조사
10	ある	194	동사
11	する	167	동사
12	さん	152	접미사
13	た	146	조동사
14	なに	130	명사
15	ね	127	조사
16	いく	120	동사
17	いる	118	동사
18	いい	113	형용사
19	と	106	조사
20	ません	105	조동사

위의 <표7-1> ~ <표7-4>를 보면 대부분의 교과서의 상위 사용 빈도 어휘는 조동사와 조사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많이 사용된 조사와 조동사에 있어서는 각 교과서 간에 그리 차이는 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교과서가 ‘입니다, 합니다, 은/는, 까?(です, ます, は, か)’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각 교과서 간에 확연한 차이점은 없었다. 그러나 각각의 개별적인 단어를 살펴보았을 때는 빈도수의 통일성에 있어서 다소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입니다(です)’의 경우, 각각 A교과서 437회, B교과서 417회, C교과서 545회, D교과서 789회로 많이 출현한 D교과서에 비해서 A, B교과서는 절반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았다. 첫 번째 순위의 어휘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가 나는 것인데, 그 차이는 순위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현저해지기 마련이다. ‘가다(いく)’의 경우에는 A교과서 38회, B교과서 71회, C교과서 104회, D교과서의 120회로 그 차이는 4배 가까이로 더 벌어지게 된다. 이와 같이 상위 20위 밖의 어휘들에 있어서는 빈도수의 통일성이 더 많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에 상위 20위까지의 어휘 중 조사, 조동사 이외에는 ‘하다, 있다, 있다(する, いる, ある)’ 등의 동사가 가장 많았고, ‘저, ~씨(わたし, ~さん)’ 등이 상위 20위 내에 많이 출현하였다. 각 교과서 별로 특징적인 것은 A교과서에서는 타 교과서에 모두 출현했던 조사인 ‘가(か)’와 ‘토(と)’, 동사인 ‘하다(する)’가 나타나지 않았고, 타 교과서에는 출현하지 않았던 동사인 ‘주십시오(くださる)’와 감동사 ‘예, 아니오(はい, いいえ)’가 나타났다. B교과서는 타 교과서에서 모두 출현했던 조동사 ‘다(た)’와 조사 ‘네(ね)’가 출현하지 않았고, 타 교과서에는 출현하지 않았던 조동사 ‘~하고 싶다(~たい)’와 접미사 ‘~때(~じ, 時)’, 명사 ‘스키(すき)’, ‘엔(えん)’이 각각 나타났다. 교과서 C, D에 있어서는 눈에 띄는 차이가 거의 없었다. 상위 20위까지의 어휘만 보면 대체로 각 교과서마다 특기할 만한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아, 이 부분에서만큼은 각 교과서간에 어느 정도 통일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었다.

3.5. 외래어 표기

각 교과서에서 외래어를 전체 어휘수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비율만큼 출현시켰는지를 비교해 볼 수 있다. 외래어 표에는 일본에 유입되어 정착된 외래어뿐만 아니라 한글의 가타카나(カタカナ)표기 등을 모두 포함시켰다.

〈표8〉 각 교과서의 외래어 출현 빈도수

교과서	외래어의 별개어수	외래어의 총 어휘수	전체 어휘의 별개어수	사용률(%)
A	63	200	442	14.25
B	78	345	562	13.88
C	73	316	632	11.55
D	76	483	580	13.10

〈표8〉는 각 교과서에 쓰인 외래어의 사용 빈도수를 나타낸다. 전체어휘의 별개어수와 외래어의 별개어수의 비율을 보면 A교과서가 14.25%, B교과서가 13.88%, C교과서가 11.55%, D교과서가 13.10%의 사용률로 총 4권의 교과서가 외래어 사용에 있어서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어는 그 특성상 어떤 것이 쓰여야 하며 어떤 것은 불필요하다고 말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따라서 각 교과서의 외래어의 사용률을 보고 교과서 간에 비교를 하며 그 유사점과 차이점만 짐작할 수 있을 뿐 어느 선이 적당하다는 것은 결론 짓기 어렵다. 따라서 외래어의 출현에 대해서 좋고 나쁨을 가릴 수 없고 양쪽 다 일장일단이 있을 수 있지만 제7차 교육과정의 의도하는 바에 따라 문화에 관한 내용이 많이 다루어지며, 일본인과의 교류에 있어서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차원에서 한국어의 가타카나(カタカナ) 표기 등도 많이 다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 문제점 및 제언

본 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교육과정의 일본어(I) 교과서의 어휘 등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정리 해 볼 수 있다.

- (1) 교과서에 수록된 사용어휘가 교과서 집필 교정보다 한 개 교과서 말고는 많다. 각 교과서 고유명사를 제외하고도 평균 554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제7차 교육과정에서 어휘를 대폭 줄여 학습하기 쉽고 학생들의 부담감을 덜어주는 교과서를 만든다는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불필요하고 비교적 중요도가 낮은 어휘들의 사용을 제한하고 좀 더 적은 어휘를 사용하여 같은 단어들을 여러 번 등장시키거나 문장의 길이를 줄여 반복 학습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여 학습자들의 이해뿐만 아니라 그 문장들을 실생활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학습자들의 학습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어야 한다.

- (2) 각 교과서 간의 기본어휘의 공통 사용률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단 한 개의 교과서에만 출현하는 어휘가 전체 어휘의 39.61%를 차지한다는 것은 고등학교 교과서라는 특성상 문제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이 정도로 교과서에서 사용되는 어휘에 있어서 공통성이 희박하다면 서로 다른 교과서를 사용하는 학습자들의 학습효과나 습득지식에 큰 차이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각 교과서는 교과서들 간의 사용 어휘에 있어서 지나치게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용문이 아닌, 기본 어휘에 충실한 창작문을 가급적 많이 사용해야 할 것이다.

- (3) 각 교과서의 기본 어휘 사용률이 전체적으로 저조했다. 기본 어휘를 가장 많이 사용한 교과서와 가장 적게 사용한 교과서가 각각 74.83%와 65.16%의 사용률을 보임으로서 비교적 중요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 기본 어휘의 사용에 충실하지 못했다. 또한, 반영된 기본 어휘에 있어서도 공통도가 대체로 저조했다.

기본어휘 771단어에서 600단어 내외를 권장하던 제6차 교육과정에 비해 7차에서는 기본 어휘는 832단어로 늘고, 500단어 내외를 사용하도록 사용어휘는 줄어들었으니 예전보다 기본 어휘 공통률을 저하시켜 학습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제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도 있으나 그럴수록 기본 어휘에 충실한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서로 다른 교과서로 학습한 학습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므로 기본 어휘 이외의 어휘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4) 각 교과서의 상위 20위 안에 드는 어휘들의 공통성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으나 그 출현 횟수에 있어서 다소 일정치 못한 부분이 보인다. 상위 20위라 하면 상위 약 4%에 해당하는 매우 많이 출현하는 어휘인데 이 어휘의 고르지 못한 출현율은

자칫 학습자들의 편식적인 학습으로 인도 될 수도 있다.

5. 마치며

제7차 교육과정의 현행 고등학교 일본어 교과서(I) 4종에서 선정되어 사용하고 있는 어휘들을 조사 분석한 결과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얻었다.

- (1) 각 교과서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어휘수 500단어 내외를 1권의 교과서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초과하고 있었으며, 각 교과서 별로 보면 각각 A교과서가 442 단어, B교과서가 562단어, C교과서가 632단어, D교과서가 580단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 (2) 각 교과서에서 사용된 총 연어수는 각각 A교과서가 4145단어, B교과서가 6088 단어, C교과서가 7838단어, D교과서가 9812단어로 조사되었다.
- (3) 각 교과서 간의 어휘의 공통 사용률은 매우 낮은 편이어서 한 교과서에만 출현한 어휘가 39.61%를 차지하였다. 각 공통어휘의 비율을 보면, 한 교과서에만 나온 어휘가 389단어로 전체의 39.61%, 두 교과서의 공통어휘가 189단어로 19.25%, 세 교과서의 공통어휘가 167단어로 17.01%, 그리고 네 교과서에 모두 등장한 어휘가 237단어로 전체의 24.13%를 차지했다.
- (4) 각 교과서의 전체 별개어수에서 기본 어휘의 사용 비율은 A교과서가 288/442로 65.16%, B교과서는 373/562로 66.37%, C교과서는 429/635로 67.88% 그리고 D교과서는 434/580로 74.83%를 차지하고 있다.
- (5) 각 교과서가 사용하고 있는 기본 어휘의 각 교과서간 공통 사용률은 한 교과서에만 출현하는 기본 어휘가 157단어, 두 교과서의 공통 기본어휘가 124단어, 세 교과서

의 공통 기본 어휘가 129단어, 네 교과서 공통 기본 어휘가 183단어로 각각 집계되었다.

(6)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832단어의 기본 어휘 중 일본어(Ⅰ)의 모든 교과서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단어는 238개로 집계되었다.

(7) 각 교과서에 쓰인 외래어는 A교과서에 총 63종 200회, B교과서에 총 78종 345회, C교과서에 총 73종 316회, D교과서에 76종 483회로 각각 나타나 외래어는 비교적 매우 고른 분포도를 보였다.

이상의 데이터를 통하여 일본어 학습자의 학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앞으로의 일본어 교재 제작 및 편집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을 본 논문은 추론해 낼 수 있었다. 첫째,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기본어휘 사용수를 고려하여 학습자의 학습 부담감을 낮추고 간접적인 학습흥미 유발을 촉진시켜 주어야 한다. 둘째, 적은 필수 어휘의 활용도를 골고루 높여 어휘 빈도수의 편차를 최소화시키는 형태로 교재 편찬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어 교재 편찬 시 이 두 가지 고려할 점을 유념한다면 이는 이전 교과서보다 더 바람직한 일본어 교재로 진일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고는 일본어(Ⅰ)교과서 4종을 조사한 것으로 전체적인 조사가 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 금후 추가로 출판된 일본어(Ⅰ) 교과서 8종과 앞으로 출판될 일본어(Ⅱ) 교과서의 어휘의 실상이 추후 밝혀지리라 믿는다.

【注】

- 1) 매년 3월 3일 여자아이의 행복과 성장을 기원하는 인형축제
- 2) 교육부 『외국어과 교육과정』(Ⅱ), 기본어휘표, p.268
- 3) 연어수 : 같은 단어가 두 번 이상 나오더라도 모두 세어 전체의 수를 계산
- 4) 별개어수 : 두 번 이상 나온 단어는 중복을 피하고 한 단어로 계산

【參考文獻】

- 姜星我 「日本語 教材의 語彙 調査 研究; 第6次 教育課程 高等學校 日本語 教科書を 中心으로」(高麗大, 1999)
- 교육부 『고등학교 외국어과 교육과정 해설(Ⅱ)』 2001.
- 교육부 『고등학교 외국어과 교육과정』 1997.
- 金淑子 「한.일어의 바람직한 교재를 위하여」(『日本學報』 第37輯, 1996)
- 김영애 「현행 고등학교 일본어 교과서 어휘에 관한 연구」(경상대, 1996)
- 閔光準·안미라 「고등학교 일본어 교과서 텍스트 데이터 베이스의 작성과 활용 방안」 (『日本語文學』 第6輯, 1999)
- 安秉坤·梁元碩 「日語 教材 開發을 위한 資料調査; 現行高等學校 日本語教科書 分析을 통하여」(『日語教育3』 大韓日語教育研究會, 1987)
- 이성란 「고교 일본어 교과서 어휘 연구」 2000.
- 이한섭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일본어 교수-학습 방법 연구」(서울(중등): 日本語教育研究會, 2002)
- 이한섭 「7차 교육과정에 다른 일본어 교과서 해설」(서울(중등): 日本語教育研究會, 2002)
- 이한섭 「어휘 조사 단위에 대한 연구」(국립국어연구원, 1997)
- 이한섭 『일어학개설』(한신문화사, 1989)
- 曹永湖 「高等日本語教科書における使用語彙の特稱」(『日本學報』 第37輯, 1996)
- 黃聖圭 「韓國現行高等學校 日本語教科書の 語彙分析」(『日本研究3』 中央大日本研究所, 1985)

第7次教育課程高等學校 日本語科教科書(Ⅰ)の語彙分析

朴 媛

本論文では第7次教育課程の実施によって、新しく出版された4種の高等學校日本語科教科書(Ⅰ)の語彙を一定の基準にしたがって、コンピューターを利用し、分析した。これによって教科書に使用された語彙の特徴と實態を明らかにし、これを實際の教育に活用すると同時に、併せて、今後の教科書編纂に参考となる資料を提供することに目的をおく。具體的な分析内容は、

- ① 各教科書の語彙數
- ② 各教科書における共通語彙の數
- ③ 教育課程に提示された基本語彙との比較
- ④ 各教科書の上位頻度語彙の比較
- ⑤ 外來語の表記

であり、その結果は、

1. 一つの教科書を除いて、三つの教科書が教育課程で要求する832基本語彙を中心に、500單語を越え、教科書の使用語彙數が多い。
2. 各教科書間の語彙の共通度が低く、教科書ごとに異なる語彙が多いので、教科書の選擇によって、學生の個別の語彙力に差が生ずる憂いがある。
3. 各教科書で使用された基本語彙については、平均68.77%の使用率で、低い數値が現れた。また、反映された基本語彙の共通度は極めて低い。
4. 各教科書の上位20位以内にはいる語彙の共通性では、大きな問題はないが、その出現の回數では多少一定でない部分がある。
5. 外來語の表記にあつては、比較的均等に現れていて、韓國文化の單語のカタカナ表記が多いのは日本人との交流において、韓國文化を紹介する立場から望

ましいことである。

以上、本論文の結果を通じて教科書編纂時、二つの事項を推論・提言できる。

一つは、教育課程で要求する832基本語彙を中心にした500単語内外を考慮して学習者の学習の負担を軽くし、間接的な学習興味の誘発を促進すべきである。

また、もう一つは、最少の必須基本語彙を使用し、その活用度を等しく高め、語彙頻度数の偏りを最少化する形態に編纂されるべきである。こうすれば一步前進した新教科書づくりになることが期待できよう。